
		<b>보 도 자 료</b>			
<b>2020년 9월 29일(조간)부터</b>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<small>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 28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small>					
배포일시	2020. 9.28.(총 5쪽)	담당부서	동물복지연구팀		
담당과장	김동훈 과장 (063-238-7050)	담당자	김기현 연구사 (063-238-7052)		

## 추석 연휴 반려견 건강, 방심하지 마세요



### -열량염분 높은 음식 피하고...차량 이동 직전 사료 먹이지 말아야-

- 농촌진흥청(청장 허태웅)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**반려견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**했다.
  - 반려인이 주는 명절 음식이나 고향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 반려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- 우리나라의 명절 음식은 기름지거나 열량과 염분이 높은 음식이 많아 **반려견에게 먹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**
  - 과도한 지방 섭취나 영양소의 과잉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, 간과 췌장에 부담<sup>1)</sup>을 준다. 과도한 염분 섭취는 설사, 구토와 함께 심할 경우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다<sup>2)</sup>.
    - 특히 **양파, 포도, 마늘, 초콜릿, 알코올** 등은 빈혈, 신장 독성, 구토, 설사,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**절대로 먹여서는 안 된다.**
    - 반려견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 요구량은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누리집(www.nias.go.kr/companion)에서 제공하는 ‘애견사료 열량 계산기’를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.

1) 과도한 지방 섭취는 더 많은 소화효소의 작용이 필요해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며, 췌장염을 일으키기도 함  
 2) 미국사료협회(AAFCO)는 사료 내 염분 요구량을 0.3%로 제한하고 있으며, 반려견 체중 1kg당 4g의 염분 섭취는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.

- 고향 방문 또는 여행을 위해 오래 차를 타야 할 경우엔 **출발 6~8시간 전에 미리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다.** 이동 직전에 사료를 먹이면 구토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  - 반려견의 전체 소화 기관은 위가 약 70%, 소장과 대장이 약 30%를 차지해 위에 사료가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.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는 데에는 대략 6~12시간<sup>3)</sup>이 소요된다.
    - 부득이 사료를 줘야 한다면 건식사료보다는 습식사료나 소화에 부담이 없는 채소 위주의 간식류를 조금만 먹이는 것이 좋다.
- **차량 운행 중 반려견이 차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, 운전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장(캐널) 등으로 안전하게 이동**한다.
  - 멀미 증상이 있을 경우, 잠시 정차해 산책을 시키거나 물을 먹이면 멀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. 이때 음식 섭취는 삼가야 한다.
  - 휴게소나 여행지 등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, 쉽게 찾을 수 있도록 **사전에 동물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**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과장은 “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, 부득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, 반려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.”라며,
  - “또한, 반려인이 집을 비우는 경우, 미리 관리 계획을 세워 반려견이 홀로 긴 시간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.”라고 말했다.

#### 【참고자료】 반려견의 안전한 명절나기

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 
 농촌진흥청 동물복지연구팀 김기현 농업연구사 ☎ 063-238-7052)에게  
 연락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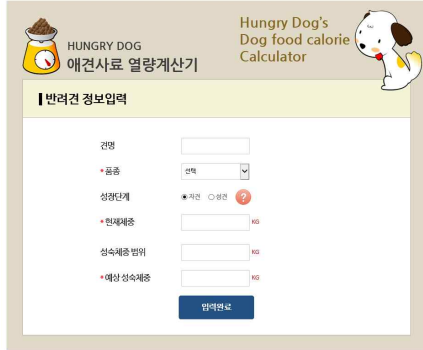
3) 사료 종류에 따른 소화시간 : 생식(4~6시간), 반건조 음식(8~10시간), 완전건조 음식(10~12시간)

【참고자료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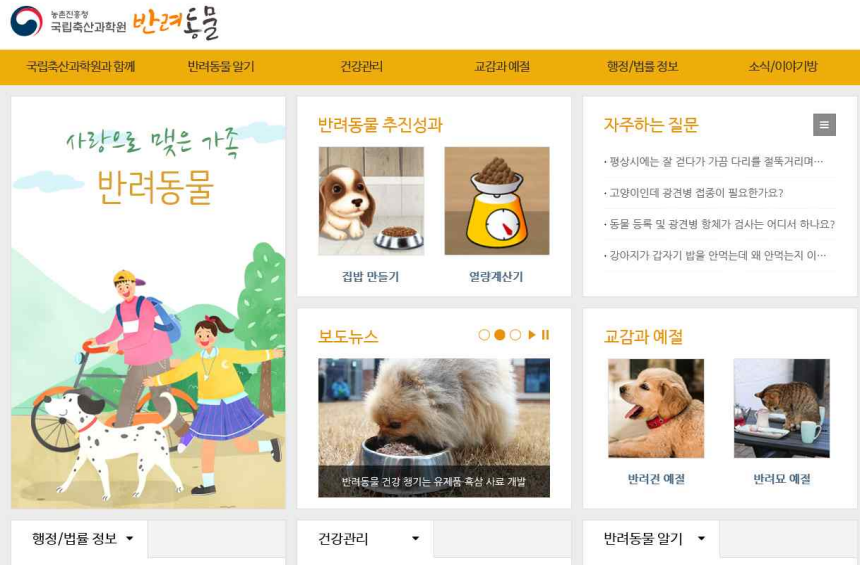
## 반려견의 안전한 명절나기

□ 반려견 사료 열량계산기

○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> 반려동물 > 열량계산기



□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누리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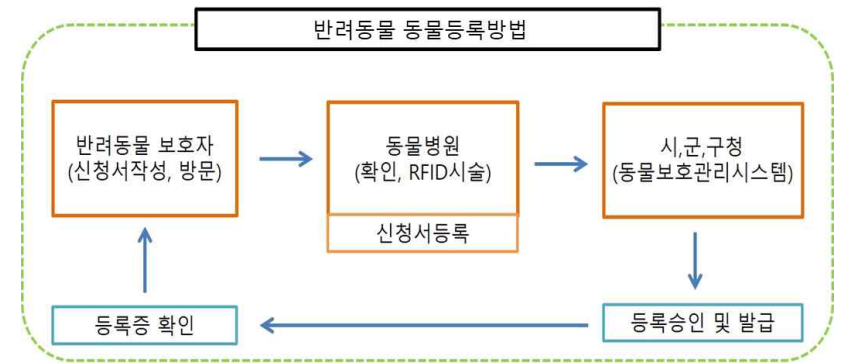
□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

(Dave Leicester(2020), Vets now)

음식	증상	음식	증상
양파	빈혈	마카다미아	보행장애
아보카도	호흡곤란	마늘	빈혈
자일리톨	저혈당, 간 독성	알코올	보행장애
포도	신장 독성	초콜릿	구토, 설사, 발작

□ 반려동물 등록방법

- 반려동물 등록제 :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
- 등록대상 동물 : 만2개월 이상의 반려견(반려묘는 의무대상 아님)
- 반려동물 등록방법
  - 1) 반려동물 보호자가 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, 비영리민간단체, 법인 등)을 통하여 동물등록 신청
  - 2) 대행기관은 신청서 등록 및 확인, RFID칩(내장 혹은 외장) 시술 - 등록 비용 및 RFID칩 비용 발생
  - 3) 대행기관에서 시·군·구청에 신고, 등록승인 및 등록증 발급
  - 4) 보호자 등록증 확인



□ 반려견 차량 탑승 시 이동장(캐널) 이용 모습

